

서울 개포동 '전남 농산물유통센터' 존폐위기

전남도, 사업자에 운영 판단 일임하기로

"100억 들여 임대업자에 땅 사준 꼴" 비난 여론

전남도가 100억원을 들여 서울에 마련한 전남 친환경농수축산물 유통센터가 매출 부진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문을 닫을 것으로 보인다.

애초 사업 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애물단지' 취급을 받았던 지하 3층 지상 5층 건물은 당분간 임대용으로만 이용될 처지에 놓였다.

전남도는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있는 전남 친환경농수축산물유통센터(유통센터) 운영방식을 변경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심각한 매출 부진을 겪고 있는 유통센터 운영에 대한 자율권을 현 건물 사업자에게 넘겨 운영방식을 개선한다는 구상이다.

2012년에 서울에서 문을 연 유통센터는 전남도가 부지 매입비 103억원을 투자하고, 민간업자가 건축비 114억원을 들여 세웠다.

민간업자는 건물을 지어 전남도에 기부채납하고 운영권만 오는 2030년까지 18년간 갖도록 했다.

하지만 전남 친환경농수축산물유통센터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지하 3층 지상 5층 건물 내 대부분을 그동안 사무실·식당·병원·커피숍·마트 등의 임대 매장이 차지했다.

건물 연면적 1만2천627㎡ 중 1층의 400㎡만 전남산 친환경농수축산물 판매장으로 이용됐다.

이마저도 매출 부진을 타개하지 못하면서 존폐 위기에 몰렸다.

실제로 유통센터 매출액은 2012년 4억2천만원에서 2012년 1천500만원, 2014년 1천900만원, 2015년 1억6천만원, 2016년 8천700만원 2017년 1천400만원으로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전남도는 이에 따라 전문가 간담회, 사업자 면담, 도의회 농수산위원회 보고 등을 거쳐 유통센터 운영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친환경 농수축산물 판매만으로는 유통센터와 건물 상권을 활성화하지 못할 것

으로 보고 건물 1층 유통센터 운영 여부를 민간업자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현재는 유통센터 유지 자체가 무의미한 상황"이라며 "먼저 주변 상권을 키운 뒤 농수산물 유통기능을 다시 반영하는 것을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유통센터 건물 주변 재건축 사업 등이 완료되는 2023년 운영방안을 재검토할 계획이다.

전남도의 이 같은 유통센터 운영 활성화 방안은 사실상 유통센터 운영 포기론 받아들여 지고 있다.

건물 운영권을 지닌 민간업자에게 유통센터 운영 여부를 맡긴 것은 유통센터 존폐에 대한 판단을 맡긴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유통센터 운영 자율권을 민간 사업자에게 넘길 경우 사실상 유통센터 폐업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전남도도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럴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전남산 친환경농수축산물 유통망 확보라는 취지를 앞세워 10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지만 6년 만에 이를 포기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남도가 건물 임대업자를 위해 100억 원을 들여 땅을 사준 꼴 밖에 안된다는 비난도 사고 있다.

전남도의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진권(고흥2) 의원은 "공공 성격의 사업에 과도한 민간투자 유입은 사업 내용이 좋지 않을 경우 결국 지자체 부담이 되고 만다"며 "좀 더 면밀한 사업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규진 기자 jin2001@



전남도가 100억원을 들여 서울에 마련한 전남 친환경농수축산물 유통센터가 매출 부진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문을 닫을 것으로 보인다.

천정배 "광주형 일자리 성공 위한 입법 추진"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은 6일 "광주형 일자리 사업 성공을 위해 중앙정부 지원을 체계화하고 노사민정 관계를 재정립하는 법을 제정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왔지만 중앙정부의 지원이나 노사민정 간의 관계에 대해 실효적인 규범을 마련하지 못했다"며 "노사상

평화당 싱크탱크인 민주평화연구원장을 맡고 있는 천 의원은 지난 4일 열린 평화당 최고위원·국회의원·상임고문 연석회의에서 "새해 벽두부터 광주형 일자리 추진의 열기가 뜨겁다. 이 용선 광주시장과 문재인 대통령께서 새해에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으니 꼭 성공하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천 의원은 "광주시 조례로 추진해

생행 일자리 모델로 확립해 전국적으로 확산하려면 입법에 의한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평화연구원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강제규범을 제공하기 위해 입법을 추진하는 등 다각도로 연구해 광주형 일자리의 성공을 도울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태평 기자 esaca@

광주시, 스마트 도시안전 인프라 확대

2022년까지 161억원 투입, CCTV 2050대·비상벨 930대 확충

광주광역시시는 안전도시 조성을 위해 2019년 방범용 CCTV 1100대를 추가 설치하는 등 4년 간 161억원을 투입해 도시안전 인프라를 대폭 확대 설치한다. 이는 민선6기(1349대)와 비교해 152% 증가한 것이다.

이번 방범용 CCTV 확대 설치의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한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추진되며 어린이보호구역 CCTV는 2019년까지, 도시공원은 2020년까지 100% 설치할 계획이다.

특히 광주시는 열악한 재정 상황을 반영해 국비(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최대한 확보하고 관계기관 및 부서 간 협업을 통해 택지개발조성 및 도시공원 조성 등 사업 허가 시 방범용 CCTV 등 도시안전 인프라를 필수시설로 설치하도록 했다.

사업비는 부지 매입비를 제외하고 약 470억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됐다. 인건비는 연간 9억2천만원, 운영비는 17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분석됐다.

수영대회와 생활체육 대회를 유치하면 연간 선수, 임원, 학부모 등 6천800명이 이용할 것으로 추산됐다. 전지훈련으로 연간 400명이 이용할 것으로 추정됐다.

입장료, 수익시설 등 수익은 연간 24억원으로 예측했으며 생산수입 1천억원, 부가가치 유발 340억원, 고용유발 487명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정승현 기자 jsh9668@

용 CCTV가 범죄예방 효과를 톡톡히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112센터, 119상황실, 재난상황실 등 관련기관은 지난 8월부터 실시간 영상정보를 공유하고 방범, 재난, 화재, 사회적 약자 등 분야별 연계를 통해 골든타임 확보하는 '스마트시티 5대 시민안전 서비스 제공' 사업에 들어갔다. 사업 시행에 따라 ▲112 긴급출동 ▲112 영상 지원 ▲119 긴급출동지원 ▲재난안전상황 대응지원 ▲사회적 약자 지원 등 5개 분야 시민안전 서비스가 지원되고 있다.

광주시는 ICT첨단기술을 활용한 기관 간 사회안전망 협업체계 구축으로 범죄 검거율 향상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남에 따라 올해는 112영상지원서비스를 관할 경찰서 상황실까지 확대한다.

이 밖에도 과거 범죄발생지역, 관제실적 등 범죄 관련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지역별, 시간대별 선별·집중관제를 실시하고 인적이 드물거나 시설물 위주 관제지역은 지능형 영상관제시스템을 확대 설치하는 등 관제효율화도 추진한다.

이용섭 시장은 "안전 없이는 시민들의 행복한 삶도,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도시도,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광주도 만들 수 없다"며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CCTV를 증설해 안전광주 실현의 전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승현 기자 jsh9668@

광주수영진흥센터 밑그림 나왔다... '국제규격 수영장·훈련시설'

광주시, 사업 타당성 검증·사업계획 마련... 세계수영대회 맞춰 추진

국제 규격의 수영장과 훈련시설을 갖춘 광주수영진흥센터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광주시는 대규모 수영 인프라 시설인 센터를 건립해 선수와 지도자를 육성하고 각종 대회와 전지훈련도 유치할 계획이다.

6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광주수영진흥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용역을 마쳤다.

이번 용역은 올해 7월 광주에서 열리는 세계수영대회에 맞춰 추진 중인 수영진흥센터 건립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사업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사업계획을 마련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사업계획을 보면 센터 부지는 연면적 1만9천634㎡, 건물은 지상 3층 규모다.

1층에는 국제 규격의 경영·연습·청소년

·유아·다이빙 풀과 함께 다이빙 훈련장, 관람석이 들어선다.

2층에는 관람석과 생활체육 시설을 비롯해 매점, 카페, 푸드코트 등 수익시설이 마련된다.

3층은 선수·지도자를 위한 숙소로 이용되고 재활치료실, 의료실, 스포츠과학실 등 지원시설이 들어선다.

별도로 수영 관련 홍보물과 기념물을 전시할 수 있는 스포츠 기념관 건립도 추

진한다.

사업비는 부지 매입비를 제외하고 약 470억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됐다. 인건비는 연간 9억2천만원, 운영비는 17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분석됐다.

수영대회와 생활체육 대회를 유치하면 연간 선수, 임원, 학부모 등 6천800명이 이용할 것으로 추산됐다. 전지훈련으로 연간 400명이 이용할 것으로 추정됐다.

입장료, 수익시설 등 수익은 연간 24억원으로 예측했으며 생산수입 1천억원, 부가가치 유발 340억원, 고용유발 487명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정승현 기자 jsh9668@

새롭게 도약하는
전남도민일보
능력있는 지역기자를 모집합니다.

고흥, 함평, 해남

전화문의: 062)227-0000 / 010-9556-0000 (직통)
팩 스: 062)227-0084
주 소: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 75 (유동 33-4) 소석빌딩 5층

사무실 임대

- 지하철 농성역 4번출구 옆
- 화정동 776-12 3층 60평
- 광주버스종합터미널 신세계백화점 금호월드·CGV영화관 인접
- 광주 새우리병원 건너편
- 2층 북교당 한약방 운영중

☎ 062)362-6900

해산 및 채권신고공고 (1차)

본 회사는 2018년 12월 26일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해산을 결의하였으며 본 회사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분은 이 공고 게재 다음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채권액을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위 기간 내에 신고가 없으면 그 채권은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19년 1월 7일

주식회사 한국부식방지기술
전라남도 여수시 소호1길 38, 301호(소호동)
정산인 정연주

서구 치평동 중흥스카이31 상가 임대

1층 101호 코너자리
전용면적 357.72㎡(108.2평)
보증금 2억원, 월임대료 1천 100만원

108호 전용면적 84.04㎡(25.4평)
보증금 5천만원, 월임대료 250만원

☎ 062)676-0004

나주혁신도시 빛가람 중흥메가티움

상가 125호
상가 201호

전용면적 415.58㎡(125.72평)
(보증금 5천만원, 월임대료 300만원)

☎ 010-4057-7999